

110억 투자한 강진 화물차 차고지 공터 전락

주차규모 1300대 불구 이용자 없어… 대부분 집 근처 주차

최근 영업용 대형화물차 '차고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강진군 성전면에 문을 연 국내 최대 규모의 강진 화물차동차 공영차고지가 이용객이 없는 텅빈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강진 화물차동차 공영차고지는 강진군이 총 110여원을 투자해 총 면적 14만975m²에 대형 화물차 1300여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차고지다.

이곳은 주차장에 외에 운수 종사자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관리동에 17개의 사무실과 식당, 수면실, 휴게실, 체력 단련장, 산책로 등 최상급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 물류동에 18개 창고와 집·배송을 취급할 수 있는 복합 시설물이 있다.

하지만 문을 연지 8개월이 지났지만 이용 차량이 거의 없어 텅빈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용객들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과 동떨어진 차고지 증명제 때문

이다. 화물차 회사들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일정 규모의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강진에 차고지를 두고는 있지만 실제 차량 운행 전후에는 자신들의 주거지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값싼 시설 이용료도 굳이 강진까지 화물차를 가져올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다. 현재 시설 사용료는 차고지가 연간 1만 1000원, 기타 운송 사무실은 32m² 1실당 80만원, 물류동

은 50m² 1실당 90만이다.

25t 차량의 경우 35m²의 주차 공간이 필요하니 연간 차고지 이용료는 3만5000원에 불과하다.

강진군은 군에 등록된 화물 차량이 1800여대로,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연간 5억원 안팎의 재정수입과 35억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이와 함께 텅빈 화물차고지 대책으로 지난달 (주)포스코와 계약을 체결, 5MW/h 용량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을 공영주차장에 세우기로 했다.

이는 동시에 16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첫해에 1억8000만 원과 매년 1억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고 15년이 지나면 모든 시설물이 군으로 반납되는 만큼 공영차고지 활용책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 김모(성전읍)씨는 "화물터미널 위치로 많은 차량이 들어오면 식당, 주유소, 여관 등 지역 상권의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성화대 폐교까지 겹쳐 화물 차고지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실망이 됐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소안도 주민 농수산물 운송걱정 던다

완도~소안도 차도선형 카페리 13일 정식 운항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11일 "완도(화흥포)~소안도 항로를 운항하던 청해진카페리1호를 대체해 새로 건조한 차도선형 여객선 청해진카페리7호(사진)의 운항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12일 완도 소안항에서 취항식을 한 후 13일부터 정식운항에 들어간다.

청해진카페리7호는 576석으로 여객 300명과 차량(승용차 기준) 82대를 동시에 수송할 수 있다. 기존 청해진

카페리1호(224석)가 승용차량 22대를 운송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운송능력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운항속력은 13노트(시속 약 24km)로 완도 화흥포항에서 소안도까지 50분이 소요된다.

청해진카페리7호는 취항 전인 지난 9일 안전 확보를 위해 시험운항을 마쳤으며, 청해진카페리3호, 5호와 함께 화흥포~소안 항로를 매일 13회 왕복할 예정이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담양대나무 축제 중

대통소리 울린다

창작경연대회 25일까지 접수

'천년의 숨결, 푸른대숲 이야기' 제 15회 담양대나무축제장에 올려 퍼질 '대통소리 창작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담양군과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는 다음달 3일부터 6일간 건강의 숲 죽녹원과 관방재림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15회 담양대나무축제' 기간에 '대통소리 창작 경연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참가자 공모에 나섰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단체나 동아리, 개인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담양'을 주제로 한 참신한 창작 노래곡이면 장르에 상관없이 경연에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5일까지이며 담양대나무축제 홈페이지(www.bamboofestoval.co.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접수된 음모곡 중 본선 진출자로 선정된 참가자들은 다음달 4일과 5일 축제 특설무대에 꾸며진 본선무대에 올라 담양주민과 관광객들 앞에서 본선을 치르게 된다.

대상 1팀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이, 금상과 은상 등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만원, 100만원, 8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또 수상팀은 다음달 8일에 열리는 제15회 담양대나무축제 폐막식에서 공연을 펼칠 기회가 주어진다.

'대통소리 창작 경연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대학교 실용음악과(061-380-8526)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백양사 '고불매' 만개

됐다.

지난 10일 장성군 북하면에 위치한 백양사에 찾은 사진작가와 팀방객들이 만개한 '고불매'(古佛梅)를 앵글에 담고 있다. 수령 350여년에 달하는 고불매는 '호남 5매'(湖南五梅) 중 하나로 꼽히며 지난 2007년 천연기념물 제486호로 지정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형형색색 300만송이 튤립 물결 보러 오세요

19일부터 10일간 신안 임자도서 축제

승마체험·자전거 타기 등 프로그램 다양

신안군 임자도에 형형색색의 300만송이 튤립 물결이 있다.

신안군은 19일부터 10일간 임자도 대광해변 일대에서 튤립 축제를 연

계한 튤립공원엔 80여 품종의 300만 송이의 튤립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보인다.

튤립 이외에도 수선화, 하야신스, 무스카리 등 초화 구근류와 리빙스턴데이지, 크리산세럼, 비올라 등 초화류(40여 종)도 함께 볼 수 있다.

튤립공원(6만8000m²), 송림원(5만2000m²), 유리온실, 수변 정원, 소나무 숲길 등을 걸으며 곳곳에 설치된 생동감 넘치는 마(馬)상 조형물(5점), 풍차전망대, 튤립파라솔, 대형전망대, 유리 조형물 등을 보며 즐길 수 있다.

튤립화분 만들기, 해변 자전거 타기, 유제꽃발 승마체험, 토피어리·아로마향초·팬시우드·매직 비누방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신